

언어와 응대 훈련 프로그램 연구

- 예전 실습을 중심으로 -

정원아 교화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의의
2. 목적
3. 진행방법
4. 진행상의 유의점
5. 언어와 응대 마음 거울

II. 언어와 응대 교법실천 역할훈련 실습

1. 교리도
2. 원불교 교전
3. 예전
4. 정산종사법어
5. 원불교 성가
6. 대산종사 법문 I.II.III.집
7. 한율안 한 이치에
8. 대종경 선외록
9. 좌산종법사 법문

I. 연구의 개요

본 연구자가 교역에 임하는 동안 언어와 응대를 법도있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교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직접 체험하고 언어와 응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부전공으로 유아교육을 하면서 PET(효율적인 부모역할 훈련)와 인간관계 훈련을 이수하여 PET강사로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교법을 통한 훈련으로 일원상 진리에 근원한 원만한 인품과 덕행,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불성 존중 생활철학, 은혜를 알고 늘 감사 보은하는 생활, 더불어 잘살도록 인도하는 사요정신, 믿음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늘 진리를 연마하고 정성으로 낙원세계를 이루어 가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을 깨닫고 원불교 교서와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상사님, 좌산 종법사님의 법문을 일마다 경계마다 받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언어와 응대 관련 법문을 발췌하면서 느낀점은 대종사님과 역대 종법사님 그리

고 많은 성현들께서도 언어와 응대의 법을 중히 여기시고 많은 경계와 지도가 계시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관련법문만을 교서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받들어 실천하므로써 하는일마다 은혜를 얻도록 하였으며 참가자들의 소중한 체험과 무한한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상호 혜두단련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도록 하는 역할 훈련 실습으로 무의식세계에서도 절로 절로 교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까지 노력해야 겠다는 염원을 담아 작성하였다.

1. 의의(意義)

「사람의 마음은 말로써 표시하고 말은 응대(應待)로써 실현되나니 언어와 응대는 곧 인도 행사와 사회교재의 중심이된다.」고 하시었다. (예전 통례편 제 7장)

언어와 응대의 예(禮)를 잘 갖추므로써 상호 인격 성장은 물론 낙원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건설하는 기본요건이 되므로 언어와 응대 역할 훈련실습은 실로 큰 의미가 있다.

언어와 응대는 대화뿐만 아니라 마음과 인격의 크기와, 눈빛, 얼굴표정, 손짓 발짓, 입모양, 목소리 크기, 듣는 태도, 뜻, 생각 등 육근 동작을 통해 표현되고 전달되므로 쉬임없는 마음공부로 성리에 바탕한 생활을 해야 한다.

2. 목적

- 1) 우리의 교법을 소중히 알고 실천해가는 연구풍토를 진작시킨다.
- 2) 교법을 통해 언어와 응대의 의의와 중요성을 재인식 할 수 있다.
- 3) 언어와 응대의 교법을 실생활 속에서 실현하는 교화능력을 기른다.
- 4) 잘못된 언어와 응대 습관을 성찰하고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
- 5) 일체만물을 모두 부처님으로 모시고 은혜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는 교화 능력을 기른다.
- 6) 일마다 경계마다 효율적인 언어와 응대로 맑고 밝고 훈훈한 낙원세계를 건설해가는 교화능력을 기른다.

3. 진행방법

- 1) 10인 1단 원형으로 앉는다.(적정인원 10~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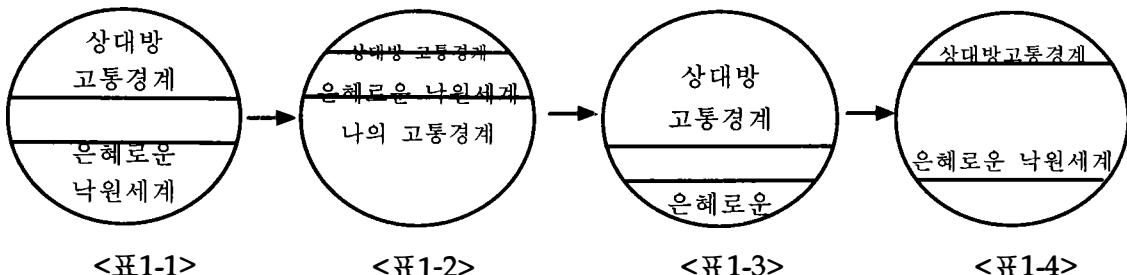
- 2) 개식-입정-설명 기도후 훈련의 의의, 목적, 진행상의 유의점을 합독한다.
 - 3) 상호 정다운 인사를 나누며 자기 소개와 훈련 참가 목적을 이야기 한다.
 - 4) 언어와 응대 마음 거울을 통해 훈련 목표와 기술을 명료화 한다.
 - 5) 교리도를 통해 일원상 진리에 바탕한 언어와 응대 방법을 모색해 본다.
 - 6) 관련법문을 봉독한 후 각 문항에 따른 역할 훈련 실습을 한다.
 - 7) 훈련을 통해 느낀 감상을 나누고 실천의지를 담은 설명기도로 마무리 한다.
- ☆ 진행과정은 상황에 따라 법회와 단회시 또는 정기훈련 일자를 1주 1회 2시간 정도정해서 경험(체험)나누기 활동을 할 수도 있다.

4. 훈련진행상의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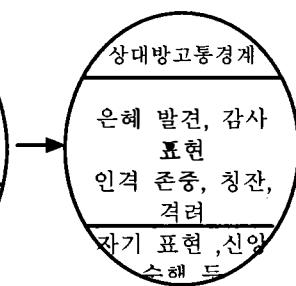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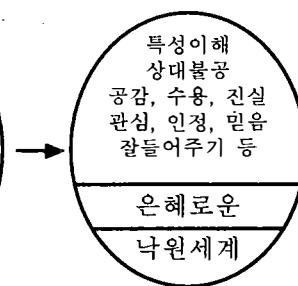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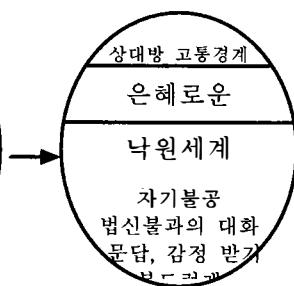
- 1) 언어와 응대 교법 실천으로 거듭나야겠다는 서원을 세운다.
- 2) 자기의 실천사례를 솔직하게 개방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 3) 개방된 사례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계교하지 않으면 비밀을 지켜준다.
- 4) 말을 독점하지 않고 상호 좋은 의견과 실천방안을 모색해 간다.
- 5)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성실한 태도로 임한다.
- 6) 온화한 표정으로 잘듣는 자세를 갖추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

5. 언어와 응대 마음거울

1) 언어와 응대 훈련 목적



2) 언어와 응대의 훈련 기술



- 1) 언어와 응대시 속상했거나 남을 불편하게 했던 경험을 이야기 합니다.
- ① 어떤 경우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었습니까
 - ② 누가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 ③ 상대방이 더 고통스러워 할 때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 ④ 내가 더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까요
- 2) 언어와 응대시 기쁨과 보람 있었던 경험을 나누어 봅니다.
- ① 언어와 응대를 어떻게 했을 때 자신과 상대가 기쁨과 보람을 느끼시던가요
 - ② 그 기쁨과 보람 어떻게 하면 유지 할 수 있을까요

II. 언어와 응대 교법실천 역할실습훈련

- 3) 교리도를 실천하기 위한 언어와 응대의 표현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① 사온 -
 - ② 사요 -
 - ③ 삼학 -
 - ④ 팔조 -
 - ⑤ 계송 -
 - ⑥ 사대강령 -
 - ⑦ 처처불상 사사불공 -
 - ⑧ 무시선무처선 -
 - ⑨ 일원은 법신불이니 -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
제불제성의심이요 -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

圓佛教 教典

정전(正典)

제 2 교의편(教義編)

제 3 절 일원상의 수행(一圓相-修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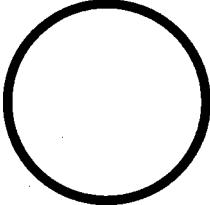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圓滿具足)하고 지공 무사(至公無私)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 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 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일원상의 수행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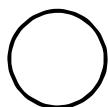
제 4 절 일원상 서원문(一圓相 誓願文)

일원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입정처(入定處)이요, 유무 초월의 생사문(生死門)인 바, 천지 · 부모 · 동포 · 법률의 본원이요, 제불 · 조사 · 범부 ·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 성 유상(能以成有常)하고 능이성 무상(無常)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 불멸로 여여 자연(如如自然)하여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 · 주 · 괴 · 공(成住 空)과 만물의 생 · 로 · 병 · 사(生老病死)와 사생(四生)의 심신 작용을 따라 육도(六途)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恩生於害)로 혹은 해생어은(害生於恩)으로 이와 같이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체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體性)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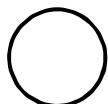
- 4)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일 되었을 때의 언어와 응대의 체험사례를 나누어 봅시다.(본인 또는 보고들은 실천사례)

제 5 절 일원상 법어(一圓相法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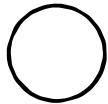
이 원상(圓相)의 진리를 각(覺)하면 시방 삼계가 다 오가(吾家)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제불 · 조사와 범부 ·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 · 로 · 병 · 사의 이치가 춘 · 하 · 추 · 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 상승(陰陽相勝)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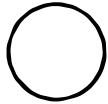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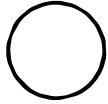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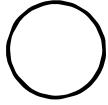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5)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언어와 응대의 사례를 들어봅시다

| | |
|--------|-----------------------------|
| ① 눈 - | ①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인줄 알면? |
| ② 귀 - | ② 우주만물이 각각 돌아 아닌줄을 알면? |
| ③ 코 - | ③ 제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인줄을 알면? |
| ④ 입 - | ④ 생노병사가 춘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면? |
| ⑤ 몸 - | ⑤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은 줄을 알면? |
| ⑥ 마음 - | ⑥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면? |

제 3 수행편(修行編)

제11장 계 문(戒文)

1. 보통급(普通級) 십계문

1) 범하는 원인 2) 미치는 영향 3) 개선점

1.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2. 도둑질을 말며,
3. 간음(姦淫)을 말며,
4.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5. 잡기(雜技)를 말며,
6. 악한 말을 말며, →
7. 연고 없이 쟁투(爭鬪)를 말며,
8. 공금(公金)을 범하여 쓰지 말며,
9. 연고 없이 심교간(心交間) 금전을 여수(與受)하지 말며,
10.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2. 특신급(特信級) 십계문

1. 공중사(公衆事)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2. 다른 사람의 과실(過失)을 말하지 말며, →

3. 금은 보배 구하는 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4.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5. 정당하지 못한 벗을 쫓아 놀지 말며,
6.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
7. 신용 없이 말며,
8. 비단 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
9. 연고 없이 때 아닌 대 잡자지 말며,
10.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 놀지 말라.

3. 법마 상전급(法魔相戰級) 십계문

1. 아만심(我慢心)을 내지 말며,
2.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3. 연고 없이 사육(四肉)을 먹지 말며,
4. 나태(懶怠)하지 말며,
5.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며, →
6.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
7. 시기심(猜忌心)을 내지 말며,
8. 탐심(貪心)을 내지 말며,
9. 진심(嗔心)을 내지 말며,
10. 치심(癡心)을 내지 말라.

6) 나의 잘못된 언어와 응대습관은 무엇이며 주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용히 점검하고 개선점을 적어봅니다.(명상음악과 나레이션)

- | | |
|------------|-------------|
| ① 악한말 - | ④ 꾸미는 말 - |
| ② 타인과 - | ⑤ 한입으로 두말 - |
| ③ 아울러 하는말- | ⑥ 망령전말 - |

대 종 경 (大 宗 經)

제 1 서 품 (序 品)

9. 단원들이 방언 일을 진행할 때에 이웃 마을의 부호 한 사람이 이를 보고 곧 분쟁을 일으키어 자기도 간석지 개척원을 관청에 제출한 후 관계 당국에 자주 출

입하여 장차 토지 소유권 문제에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아니한지라 단원들이 그를
깊이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사 중에 이러한 분쟁이 생긴 것은 하
늘이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심인 듯하니 그대들은 조금도 이에 끌리지 말고 또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도 말라. 사필 귀정(事必歸正)이 이치의 당연함이어니와
혹 우리의 노력한 바가 저 사람의 소유로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 있어서는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으며, 또는 우리의 본의가 항상 공중을 위하여 활동하기로 한 바
인데 비록 처음 계획과 같이 널리 사용 되지는 못하나 그 사람도 또한 중인 가운데
한 사람은 되는 것이며, 이 빈궁한 해변 주민들에게 상당한 돈이 생기게 되었
으니 또한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일도 되지 않는가. 이 때에 있어서 그대들은 자
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의로만 부지런히 힘쓴다면 일은 자연
바른 대로 해결되리라.]

7)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비방할 때 어떻게 응대하시는지요. 사례를 들어 이야기
하십시오.(서품9장 봉독)

제 2 교 의 품(教 義 品)

26. 대종사 부산 지방에 가시었더니, 교도 몇 사람이 와서 뵈옵고 말하기를 「저
희들이 대종사의 법을 한량없이 흡吸取하오나, 다만 어업으로써 생계를 삼으므로 항
상 첫 계문을 범하게 되오니, 이것이 부끄러워 스스로 퇴굴심이 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사람의 생업(生業)은 출지에 바꾸기 어렵나니, 그대
들의 받은 삼십 계문 가운데에 그 한 계문은 비록 범한다 할지라도 그 밖의 스물
아홉 계를 성심으로 지킨다면 능히 스물 아홉 선을 행하여 사회에 무량한 공덕이
나타나리니, 어찌 한 조목을 수행하지 못한다 하여 가히 지킬 만한 남은 계문까지
범하게 되어 더욱 죄고의 구렁에 들어가리요, 또는, 남은 계문을 다 능히 지키면
그 한 계문도 자여히 지킬 길이 생기게 되리니 이와 같은 신념으로 공부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라.」

8) 26장 법문을 받들고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얘기해 봅니다.

제 3 수 행 품(修 行 品)

32. 한 제자 급히 밥을 먹으며 자주 말을 하는지라,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한 마디 하는 데에도 공부가 있나니, 만일 너무 급히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 들기 쉽고, 아니 할 말을 하거나 정도에 벗어난 말을 하면 재앙이 따라 불기 쉬운 지라, 밥 하나 먹고 말 한 마디 하는 것을 작은 일이라 하여 어찌 방심하리요.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공부할 기회가 이르렀다 하여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재미를 삼나니 그대도 이 공부에 뜻을 두라.」

제 4 인 도 품(人 道 品)

19. 한 제자 자기의 부하 임원에게 지나치게 엄책하는 것을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중애에 끌린 바가 없이 훈계하였다면 그 말이 법이 될 것이나, 만일 끌린 바가 있었다면 법이 되지 못하리라. 천지의 이치도 더위나 추위가 극하면 변동이 생기는 것 같이 사람의 처사하는 것도 너무 극하면 뒷날의 쇠함을 불러들이 나니라.」

20. 한 제자 어린 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섭기는 도가 있고,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 지라도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2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사람사람이 다 나팔이 있어 그 나팔을 불되 어떤 곡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어떤 곡조는 슬프게 하고, 어떤 곡조는 즐겁게 하며, 어떤 곡조는 슬프게 하고, 어떤 곡조는 다투게 하여, 그에 따라 죄와 복의 길이 나누이게 되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불 때에,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9) 공부심없이 말을 자주 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수행품 32장 봉독후)

- ① 말을 자주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 ② 아니할 말과 정도에 벗어난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요.

10) 바람직한 꾸중의 사례를 들어봅니다.(인도품 19장, 20장 봉독 후)

- ① 지나친 엄책, 극하고 강한표현은 없었는지 점검해 봅니다.
- ② 어린아이를 대할 때 언어와 응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11) 나의 나팔은 경계를 당하여 어떤 곡조를 낼까요?(인도품 21장 봉독후)

34. 대종사 신년을 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여러 사람에게 세배(歲)를 받았으니 세속 사람들 같으면 음식이나 물건으로 답례를 하겠으나, 나는 돌아오는 난세를 무사히 살아갈 비결(秘訣) 하나를 일러 줄 터인즉 보감을 삼으라.」 하시고 선현(先賢)의 시 한편을 써 주시니 곧 “처세에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處世柔爲貴) 강강함은 재앙의 근본이니라(剛強 祸基) 말하기는 어눌한 듯 조심히 하고 (發言當欲訥) 일당하면 바보인 듯 삼가 행하라(臨事當如痴) 급할수록 그 마음을 더욱 늦추고(急地尙思緩) 편안할 때 위태할 것 잊지 말아라(安時不忘危) 일생을 이 글대로 살아 간다면(一生從此計) 그 사람이 참으로 대장부니라(眞個好男兒)” 한 글이요, 그 글 끝에 한 귀를 더 쓰시니 “이대로 행하는 이는 늘 안락하리라(右知而行之者常安樂)”하시니라.

35. 하루는 여러 제자들이 신문을 보다가 시사(時事)에 대하여 가부 평론함이 분분하거늘,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남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는가. 참된 소견을 가진 사람은 남의 시비를 가벼이 말하지 아니하나니라. 신문을 본다 하여도 그 가운데에서 선악의 원인과 그 결과 여하를 자상히 살펴서 나의 앞 길에 거울을 삼는 것이 공부인의 떳떳한 행실이요, 참된 이익을 얻는 길이니, 이것이 곧 모든 법을 통해서다가 한 마음을 밝히는 일이라, 이러한 정신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은 신문이 곧 산 경전이 될 것이요, 혜복의 자료가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리어 날카로운 소견과 가벼운 입을 놀려 사람의 시비 평론하는 재주만 들어서 죄의 구렁에 빠지기 쉽나니 그대들은 이에 크게 주의하라.」

44. 대종사 임신한 부인을 대하시면 매양 「모진 마음을 내지 말며, 모진 말을 하지 말며, 모진 행동을 하지 말라.」 하시고 특히 살생을 금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태아(胎兒)가 모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영식(靈識)이 어리는 때라, 그 부모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태아의 장래 성질에 영향을 주기 쉽나니 그 동안 태모의 근신이 극히 중요하나니라.」

12) 부드러운 언어 응대로써 거절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2인 1조로 역할실습을 합니다.

13) 모진말로 상대방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한 후, 말한 자와 듣는 자의 느낌을 들어 봅니다.

4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가르치는 데에 네가지 법이 있나니, 첫째는 심교(心敎)라 마음에 신앙처를 두고 바르고 착하고 평탄하게 마음을 가져서 자녀로 하여금 먼저 그 마음을 체받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행교(行敎)라 자신이 먼저 실행하고 행동에 법도가 있어서 자녀로 하여금 저절로 그 실행을 체받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언교(言敎)라 매양 불보살 성현들과 위인 달사들의 가언(嘉言) 선행(善行)을 많이 일러 주어 그것을 체받게 하며 모든 사리를 순순히 타일러서 가르치는 것이요, 넷째는 엄교(嚴敎)라 이는 철없는 때에 부득이 위엄으로 가르치는 법이니 이를 자주 쓸 법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한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되 어머니 태중으로 비롯하여 성인(成人)이 되기까지 이 네 가지 법을 아울러 쓰면 착한 사람 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56. 대종사 하루는 역사 소설을 들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문인들이 소설을 쓸 때에 일반의 흥미를 돋구기 위하여 소인이나 악당의 심리와 행동을 지나치게 그려내어 더할 수 없는 악인을 만들어 놓은 수가 허다하다니 이도 또한 좋지 못한 인연의 씨가 되니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옛 사람의 역사를 말할 때에나 지금 사람의 시비를 말할 때에 실지보다 과장하여 말하지 말도록 주의하라.」

제 5 인 과 품(因 果 品)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좋게 여기고 칭찬 한 번 한 일이라고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果)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나니라. 지령이와 지네는 서로 상극의 기운을 가진지라 그 껌질을 불에 태워보면 두 기운이 서로 뺏지르고 있다가 한 기운이 먼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나니, 상극의 기운은 상극의 기운 그대로 상생의 기운은 상생의 기운 그대로 상응되는 이치를 이것으로도 알 수 있나니라.」

- 14) ① 言敎의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봅니다.(인도품 45장)
② 과장된 시비를 들었을때의 느낌을 말해 봅니다.

- 15)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칭찬을 해봅시다.(인과품 5장)

☆불보살, 성현 위인 달사의 가언선행집과 칭찬사례등 언어와 등대 모음집 발간도움

1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몸과 마음으로 가지 가지의 죄업을 지어 그 과보 받는 종류가 실로 한이 없으나, 몇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 그 한 끝을 일러 주리라. 사람이 애매한 말을 많이하여 속을 많이 상하게 한즉 내세에 가슴앓이를 앓게 될것이며, 사람이 남의 비밀을 엿보거나 엿듣기를 좋아한즉 내세에 사생아 등으로 태어나 천대와 창피를 당할 것이며, 사람이 남의 비밀을 잘 폭로하고 대중의 앞에 무안을 잘 주어서 그 얼굴을 뜨겁게 한즉 내세에는 얼굴에 흉한 점이나 흉터가 있어서 평생을 활발하지 못하게 사나니라.」

2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무서운 죄업 세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결 눈치로 저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다고 단정하여 남을 모함하는 죄요, 둘은 남의 친절한 사이를 시기하여 이간하는 죄요, 셋은 삿된 지혜를 이용하여 순진한 사람을 그릇 인도하는 죄라, 이 세 가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는 과보나, 말을 못하는 과보나, 정신을 잊어버리는 과보 등을 받게 되나니라.」

제 11 요 훈 품(要 訓 品)

3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 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낙망과 불안을 주기도 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 되고 복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제 13 교 단 품(敎 團 品)

40. 대종사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쓸 때에 공연히 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하여,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공론(公論)이나, 사실에 넘치는 과장이나, 공교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말이나, 수행 한 편에 치우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세상에 이익도 없고 도인을 만들지도 못하나니라.」

16) 언어와 응대 인과법문을 받들고 어떤 느낌이 신지요?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 ① 비밀폭로와 무안을 주면 -
- ② 모함하고 이간하고 그릇인도하면 -
- ③ 환심만을 사기위한 언어와 응대 표현을 경계하신 뜻은(교단품 40장)

17) 2인 1조로 짹을 지어 희망을 주는 언어표현 실습을 해봅니다.

- 사례1) 실직당한 교도님과의 상담
- 사례2) 수술을 받고도 사경상태에 있는 교도님과의 면담

예전 (禮典)

총 서 편(總序編)

예의 근본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널리 공경함이니 천만 사물을 대할 때에 항상 공경 일념을 잊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매양 겸양함이니 천만 사물을 대할 때에 항상 나를 낮추고 상대편을 높이는 정신을 잊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계교하지 않음이니 천만 예법을 행할 때에 항상 내가 실례함이 없는가 살피고 상대편의 실례에 계교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니라.

또한 예의는 상하 계급의 차별법을 많이 사용하는지라, 무슨 방면으로든지 차별법만 잘 밝히면 이를 예의의 정체(正體)로 알기 쉬우나, 원리에 있어서는 외경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찾고, 차별법이 없는 자리에 주(住)하여 다시 차별법을 쓰는 것이 곧 예의의 전체를 닦는 것이며, 예의의 전체를 닦은 후에야 모든 예법이 다 본원에 돌아와서 천만 작용을 할지라도 지엽에 흐르는 폐단이 없을 것이니, 예를 공부하는 이가 마땅히 이에 크게 힘쓸 것인니라.

18) 禮의 근본에 바탕한 언어와 응대표현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생활실습을 해 봅니다.

① 공 경(공경심으로 하는 언어와 응대)

② 겸 양(겸양심으로 하는 언어와 응대)

③ 무계교(진실과 순박함으로 하는 언어와 응대)

사례1) 매사에 보고를 잘하지 않고 일처리하는 직원을 대하면서

사례2) 남편이 전화도 없이 밤 1시가 넘어서야 귀가했을 때

사례3)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당했을 때

제 1 통례 편(通禮編)

제 7 장 언어(言語)와 응대(應對)

제1절 언어·응대에 대하여

사람의 마음은 말로써 표시하고 말은 응대로써 실현되나니, 언어 응대는 곧 인도 행사와 사회 교제의 중심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먼저 언어 응대의 법을 가르쳐서 사회 진출의 기본 지식을 삼게 하며, 제불 제성께서도 또한 언어 응대의 법을 중히 생각하사 많은 경계와 지도가 계시었나니, 사람이 만일 이 언어 응대의 예의를 갖지 못하면 인류의 공동 생활에 서로 장애가 생기고 사회의 문명이 자연 저속한 데 떨어질 것이니, 마땅히 이에 크게 주의하여야 할 것이라.

제2절 말하는 법

1. 말은 비록 상하의 차별이 있으나, 그 정신만은 항상 사람을 서로 중히 알고 경흘히 아니하는 일반적 경의를 가질 것이요
2. 말은 매양 처지와 잠소와 때를 잘 살펴서, 각각 그 경우에 망념됨이 없게 할 것이요
3. 말은 매양 진실 정직하게 하고 간교한 수단으로써 거짓을 꾸미지 말 것이요
4. 말은 매양 신(信)과 의(義)를 주로 하고 한 입으로써 두 말을 하지 말 것이요
5. 말은 매양 간결하고 침착하게 하여 요령과 순서를 분명하게 할 것이요
6. 말은 매양 정중하고 평화롭게 하여 악한 말과 독한 소리를 하지 말 것이요
7. 말은 매양 너그럽고 여유 있게 하여 막된 말을 하지 말 것이요
8. 말은 매양 사람의 천륜을 보호하며, 사람의 인연을 좋게 인도하도록 할 것이요
9. 말은 매양 사람의 향상하는 길을 열어 주도록 할 것이요
10. 어른에게 하는 경칭 경어와 선진 평교 수하에게 하는 호칭을 각각 적당하게 하며 자칭하는 말도 또한 거기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할 것이요
11. 대중적 존모를 받는 어른들에게는, 비록 내가 직접 신봉하는 연원이 아닐지라도 매양 정중한 경어를 쓸것이며, 범호나 아호가 있는 이에게는 호를 부르고 관직에 있는 이에게는 직명을 부르되 시대의 통례에 의하여 각각 과불급이 없게 할

것이요

12. 비록 수하 사람에게라도 경박하고 거만한 말을 쓰지 말며, 자기에게는 수하일지라도 그의 수하 사람에게 그의 말을 할 때에는 적당한 경칭과 경어를 써줄 것이요

13. 남녀간에는 더욱 경어를 쓸 것이니라.

19) 말하는 법을 봉독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역할실습을 합니다.

제3절 응대하는 법

1. 응대할 때에는 부드러운 얼굴과 화한 기운으로 명쾌한 담화를 교환하도록 할 것이며, 응대 전에 혹 다른 일로 성내거나 불평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상대편에 그 것을 나타내지 말 것이요

2. 응대하는 가운데 싫증나는 기색과 거만한 태도를 나타내지 말 것이며, 몸이 과히 괴로운 때에는 그 사실을 말하여 양해를 얻을 것이요

3. 대화할 때에는 상대편의 말을 공손히 들어서 그 요령을 잘 기억할 것이며, 몸이 과히 괴로운 때에는 그 사실을 말하여 양해를 얻을 것이요

4. 대화는 상대편의 말이 끝남을 기다려서 하며, 또는 자기의 말만으로 시간을 독점하지 말 것이요

5. 보통 담화를 할 때에는 매양 쉬운 말을 쓰고,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옛 말이나 새 말이나 외국어나 학술어 등을 함부로 써서 상대편을 난처하게 하지 말 것이요

6. 응대할 때에 혹 기침 등이 나오거든 자리를 피하거나 몸을 돌려 중요히 처리하여 그 불결한 빛을 보이지 말 것이요

7. 여러 사람이 서로 담화할 때에 망령되어 입을 열어 다른 사람의 담화를 방해하지 말 것이요

8. 응대할 때에 딴 곳을 보거나 책이나 신문 등을 보아 상대편에 무성의를 표하지 말 것이요

9. 응대할 때에 자주 시계를 보아 바쁘고 초조한 태도를 보이지 말며, 만일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그 사실을 바로 말하여 상대편의 이해를 얻을 것이요
10. 대화할 때에 친소를 막론하고 과한 농담이나 궤변이나 상대편을 모멸하는 언사와 태도를 삼갈 것이요
11. 대화할 때에 학벌이나 기술이나 자기 집의 권세나 재산 등을 자랑하는 언사와 태도를 삼가며, 또는 자기의 궁상을 늘어 놓지도 말 것이요
12. 대화하는 가운데, 남을 비방하고 조소하는 말을 삼가며, 사람의 신분에 관한 비밀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 것이요
13.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상대한 사람의 과실(過失)과 단점을 지적하여 말하지 말 것이요
14. 대화하는 가운데 상대편의 말이 혹 비위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문 무답(問無答)하지 말 것이요
15. 대화하는 가운데 혹 감정이 상한다 할지라도, 대화하는 예의는 잊지 말 것이요

20) 응대하는 법을 봉독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역할 실습을 합니다.

21) 언어와 응대시 주의해야 할 걸림돌을 점검해봅니다.

鼎山宗師 法語

세전 (世典)

2. 태교(胎教)의 도

사람의 교육은 태교로부터 비롯되나니, 옛날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姪)이 문왕을 태종에서부터 가르쳤다 하여 태교라는 말이 세상에 전하게 되었는바, 사람의 영식이 모태에 들었을 때 태교를 잘하면 원래에 좋은 영식은 그 기질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원래에 좋지 못한 영식이라도 어느 정도 그 기질이 좋아질 수 있으며, 태모가 몸과 마음을 함부로 하여 태교를 잘못하고 보면 영식의 좋고 낫음을 막론하고

그 기질이 또한 낫아질 수 있나니,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말씀 하시기를 「태아가 모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영식이 어리는 때라 그 부모의 말과 마음과 행동이 태아의 장래 성질에 영향을 주기 쉽나니 그 동안 태모의 근신이 극히 중요하다」고 하셨나니라.

태교의 법은 먼저 몸을 삼가는 것이니, 힘에 과한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며 기울어 지고 위태한 곳에 오르 내리기를 삼가며 차고 덥고 마르고 습함이 고르지 못한 곳을 피하며 익지 않은 과실이나 상한 음식을 먹지 말며 주리고 배부르고 수고롭고 편안함이 과하지 않기를 주의할 것이요, 다음은 마음을 청청히 하는 것이니,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말며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을 두지 말며 근심과 번뇌를 가라 앉히고 무섭고 놀라운 경우에 안심하기를 주의하며 자주 법회에 참예하여 부처님과 어진이의 가르치심을 잘 듣고 언제나 마음 공부의 대중을 놓지 말 것이요, 다음은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니, 몸으로 살생과 도적과 간음을 범하지 말며 입으로 망령된 말과 꾸미는 말과 악한 말과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며 모든 일을 항상 공변되고 정당하게 처리하며 대중을 널리 공경하고 힘 미치는대로 보시(布施)를 행하며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곳의 규율과 공중 도덕을 잘 지킬 것입니다.

22) 영식(靈識)이 어리는 때라 하여胎母의 근신을 중시하셨는데 우리의 평소 언어와 응대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법어 (法語)

제 2 예 도 편(禮道編)

17.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말로써 사람의 천륜을 끊는 것은 곧 인간의 강상을 파괴하는 큰 죄가 되며, 고의로나 또는 무의식 중일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지 못한 말을 함부로 전하여 서로 원망과 원수가 나게 한다면 그 죄가 심히 큰 것 이니, 방편이나 사실을 막론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말을 잘 연락시켜서 종래에 있던 원망과 원수라도 풀리게 하며, 옳은 일에도 상대로 하여금 매양 발심이 나게 하고 그 잘한 일을 추진해 주는 것이 곧 사람의 정신을 향상시키는 참다운 예가 되고 좋은 공덕이 되나니라.」

18.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의 환경이 좋을 때에는 아침하고 낮을 때에는 모멸함

은 소인의 일이니, 저 사람의 환경이 낮을 때에 더욱 정의를 잊지 않는 것이 군자의 예요, 이해를 따라 의리를 잊거나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예를 행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예를 폐하는 것은 예의 본의를 알지 못함이니, 이해와 은현을 막론하고 의리와 예의를 잊지 않는 것이 예의 본의를 알아 행하는 것이라.]

23) 사람의 정신을 항상시킬 수 있는 언어표현을 구체적으로 말해봅니다.

- ① 상생상화, 좋은 인연을 맺게 하는 표현은 -
- ② 매양 발심이 나도록 하는 표현은 -
- ③ 환경이 낮을 때에 의리와 예의를 잊지 않은 표현은 -

제 7 권 도 편 (勸道編)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은 듣는 이의 마음 정도에 따라, 평범하게 한 말이 소중한 법설이 되기도 하고, 애를 써서 설한 법문이 범상한 말이 되기도 하나니라. 그러므로, 법을 듣는 이는 먼저 돈독한 신성과 극진한 공경을 바치고 무조건 봉대하는 심경으로써 한 마디라도 그 말씀을 헛된 데에 돌려 보내지 아니 하리라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그 법이 깊이 감명되어 길이 잊혀지지 아니하며 실지 경계에 활용되어 실다운 이익을 얻나니라.」

2. 말씀하시기를 「들을 때에만 흥취 있고 들은 뒤에 취할 것이 없는 말은 공교한 말이요, 들을 때에는 비록 담당하나 생각할수록 묘미가 있는 말이 좋은 법문이며, 말이 너즐기만 하고 별로 추려 잡을 것이 없는 말은 번거한 말이요, 말은 간략하나 뜻이 풍부하여 활용할 길이 분명할 말이 좋은 법문이니라. 지혜 있는 사람들은 시장 사람들의 현화 잡담 속에서도 법설을 발견하는지라 비록 초학인의 서투른 말 속에서도 깨달음과 느낌을 얻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당한 선지식이 법을 설하여도 날 넘는 재주로 사랑만 하고 거기에서 실지 이익을 취할 줄 모르나니 이 어찌 손해가 아니리요. 법을 설하는 이는 스스로 그 지견과 행실을 돌아보아 말을 할 필요가 있지마는 듣는 이는 설하는 이의 행실에 구애하지 말고 오직 그 말만 취해다 쓰면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나니라.」

53. 말씀하시기를 옛 말씀에 심심창해수(心深滄海水)요 구중곤륜산(口重崑崙山)이라 하였나니 마음을 쓰되 창해수같이 깊고 깊어서 가히 헤아릴 수 없이하고, 입을 지키되 곤륜산같이 무겁게 하라. 안으로 큰 사람이 되어갈수록 그 심량을 가히 헤아리지 못하나니 작은 그릇은 곧 넘쳐흐르나 큰 그릇은 항상 여유가 있나니라.

제 11 법 훈 편(法訓編)

18. 말씀하시기를 「충고를 감수할 경지만 되면 그 공부는 일취월장 하나니라.」
39. 말씀하시기를 「구시화문(口 罪門)이라 하거니와 실은 구시화복문(口 罪福門)이니, 잘못 쓰면 입이 화문이지마는 잘 쓰면 얼마나 복문이 되는가.」
40. 말씀하시기를 「말 한 마디에 죄와 복이 왕래하나니, 한 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말라.」
41. 말씀하기를 「말은 후하게 하고 일은 민첩하게 하라.」

24) 법문을 듣는 道, 법문을 설하는 道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자연의 무상설법 /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설법까지)

25) 口是禍福門의 예를 들어 봅니다. / 서로 충고를 해주는 실습을 해 봅니다.

26) 입을 지키되 곤륜산 같이 무겁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곤륜산 - 중국의 전설속에 나오는 하늘에 이르는 큰산, 玉이 나오는 아름다운 산, 不死의 물이 흐르는 神仙境이다.

제 12 공 도 편(公道編)

50.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교화하는 이는 자신이 먼저 실지로 느끼고 체험하여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설교하며, 진실하게 참다운 인연을 널리 맺고 대중을 두루 살펴 감화시켜야 모든 사람과 참다운 법연이 맺어지고 기운이 서로 응하여 참된 교화가 이뤄지나니라.」

51. 지방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몸이 곧 대종사의 분신이요 회상의 일부라, 우리가 잘하면 대종사의 위덕과 회상의 명예가 더욱 드러나고 우리가 잘못하면 대종사의 위덕과 회상의 명예가 오손되나니, 우리는 항상 각자의 몸을 가벼이 알지 말고 일동 일정을 신중히 할 것이요, 교도를 교화하는 데에는 비록 소소한 일이라도 먼저 몸으로써 성의껏 시범하며, 항상 기울지 않는 태도로 대중을 널리 포섭할 것이요 교도들의 신앙심과 사업심을 항상 중앙에 잘 연락시켜야 하나니, 교무가 만일 본부 연락에 힘쓰지 아니하고 편벽되게 신심을 집중하거나 지방의 사업에만 국한되게 한다면 통일적 교화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회상은 반드시 병들게 되나니라.」

63. 말씀하시기를 「대중을 지도 하는 이는 일동 일정에 항상 사심 없는 은전한 마음으로 축사를 하여, 말을 할 때에도 그 말이 굴러 가면 인류 사회에 어떠한 이

해가 미칠 것인가를 잘 살펴서 한 마디 말이라도 신중히 하여야 하나니라.」

제 15 유 촉 편(遺囑編)

12. 말씀하시기를 「동지간의 잘못을 서로 제 잘못으로 알고 자기의 잘못을 살필지언정 동지를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며 서로가 용서하고 깨우쳐 나아가면 정의가 상통하여 법의 맥이 서로 연할 것이요, 언제나 당시의 법주재하는 이에게 기운을 모아서 모르면 묻고 양심대로 직고하며, 법을 들되 귀하게 알고 중하게 여겨야 심법이 상통하여 법의 맥이 길이 끊지지 아니하리라.」

27) 동지와 교단과 전 인류를 위해 언어응대 표현 여부를 점검하고 구체적 실례로써 역할 실습을 해봅니다.

- ① 대중을 교화하고 감화시킬 수 있는 언어와 응대를 어떻게 할까요.
- ② 대종사님 위덕과 회상의 명예가 드러나도록 하는 언어와 응대표현을 해봅니다.
예) 대종님이 다시 오셔도 더 이상 부교무를 줄 수 없다 (X)
- ③ 법주재하시는 종법사님께 기운을 모으는 언어와 응대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예) 종법사님께서 땅을 ○○원 이하는 팔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X)

28) 온 천지 일체만물을 크신 부처님으로 모시는 언어와 응대표현은 어떠할까요?

29) 말로써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업을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 고쳐야 할 언어습관 :

• 바꾸어야 할 응대습관 :

30) 하루하루의 생활이 고운 말로써 인연마다 화한 꽃이 피어나도록 기도문을 작성해봅니다.

31) 오늘 하루도 좋은 인연 맺는 언어와 응대가 되도록 어떻게 노력하셨는지요?

32) 내 음성 메아리치는 곳마다 성불제종 인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大山宗法師 法問 I 集

무시선 · 무처선(無時禪 · 無處禪)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동정간 정신을 성성적적(惺惺寂寂) 적적성성 하게 하고 한결되게 하여 여의자재(如意自在)하게 만드는 산 선법(禪法)이다.

정력(定力)을 얻을 때까지 마음을 멈추자.

(수호<守護> = 검문소 설치)

혜력(慧力)을 얻을 때까지 생각을 궁굴리자.

(사색<思索> = 탁마<琢磨>한 광석<鑛石>)

계력(力)을 얻을 때까지 취사하자.

(실천 = 부도 안 난 수표)

삼대력(三大力)을 얻어 나가는데 일분 일각도 간단없이 일심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바르고 빠른 길이다.

* 동정간 불리선법(動靜間不離禪法)

육근(六根)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有事)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원만한 육근

1. 원만한 눈이라야 다 볼 수 있고,
2. 원만한 귀라야 다 들을 수 있고,
3. 원만한 입이라야 다 말해 줄 수 있고,

4. 원만한 코라야 냄새를 다 분별할 수 있고,
5. 원만한 몸이라야 다 용()할 수 있고,
6. 원만한 마음이라야 다 사랑할 수 있나니라.

33) 온전한 생각으로 올바른 언어용대를 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화(人和)의 도

1. 크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열 번만 관대히 용서해 주면 열 한 번째는 잘 하리라.
2. 무엇보다도 먼저 정의가 건네야 한다.
3. 남의 뜻을 맞추기에 노력하라.
4. 몸소 더 배우고 더 실천하라.
5. 남의 부족을 말하는 것보다 그 장점을 말해주기에 노력하라.
6. 상선벌악(賞善罰惡)을 하되 벌은 조금 덜 주라.
7. 항상 인격을 존중하고 주권을 세워주라.
8. 중애에 끌리지 말고 항상 원만하라.

웃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법

1. 마음이 바르어야(正) 할 것이요.
2. 말이 법이 있어야 할 것이요.
3. 행동에 덕이 있어서 후인의 사표가 되어야 할 것인이라.

웃사람 된 자가 이상 세 가지에 결함이 있으면 남의 전정(前程)을 책임지고 지도할 인물이 되지 못할 것인이라.

사물잠(四勿箴)

1. 예(禮) 아니면 보지 말며,
2. 예 아니면 듣지 말며,
3. 예 아니면 말하지 말며,
4. 예 아니면 동(動)치 말자는 것이다.

34) 칭찬하는 道에 대해 구체적인 실습을 해봅니다.

- ① 칭찬하는 사례
- ② 장점격려하는 사례
- ③ 예 아니면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 사례

인생 오기(五期)

천지는 사시의 절서(節序)가 있어서 이를 어기지 아니하므로 만물이 나고 자라 결실을 거두는 차서를 얻게 되는 것 같이 사람도 한 생을 통하여 그 시기를 잊지 아니하면 일생이 보람되고 영생이 완전할 것이요 만일 그 시기를 잊으면 일생이 허망하고 영생이 위태로울 것이다.

1. 대창시기(大創始)

모태중에 심신의 기운이 어리고 형체를 이루는 때요, 이 세상에 태어나 타력만을 힘입는 때이다.

첫째, 태모를 비롯한 주위 인연의 간절한 마음과 환경이 태아의 영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니 기원 일념으로 태교를 잊지 말 것이요.

둘째, 부모를 비롯한 주위 인연이 마음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갖고 삼가 좋은 기운이 미치고 본받게 할 것이요.

셋째, 특히 살생과 모질과 막된 말을 삼가야 할 것이다.

여섯 가지 철 모르는 사람

1. 대 · 소변 못 가린 사람이요.
2. 코 · 침을 못 가린 사람이요.
3. 말 못 가린 사람이요.
4. 눈 못 가린 사람이요.
5. 귀 못 가린 사람이요.
6. 마음 못 가린 사람이니

이상 여섯 가지 철만 들면 아는 대인이 될 것이라.

35) 말 못 가린 사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36) 귀 못 가린 사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삼 덕(三德)

나도 잘 살고 자녀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기로 하면
다음 세 가지 덕을 갖추어야 되나니

1. 마음의 덕(心德)이라.

항시 두렷(圓)하고 밝고(), 참됨(眞)을 지켜서 남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남 잘 되기를 빌어주는 마음이요

2. 말의 덕(言德)이라.

항시 부드럽고(柔), 화(和)하고, 법 있는 말(法言)을 하므로써 남의 잘하는 것을 말하고 남을 잘 되게 하여 주는 말이요.

3. 행의 덕(行德)이라.

항시 매사에 정성되고, 공경하고, 신의가 있으므로써 정신이나 육신이나 물질이 나간에 남에게 이익을 끼쳐 주는 행을 이름이니,

모든 사람이 이상 세 가지 덕만 잘 갖춘다면 온 천하가 고루 살 수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 세 가지

1. 처음 한 생각 출발이 죄의 싹으로 움이 트는 일이다.

2.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이 원수를 풀지 못하고 맷어만 가는 일이다.

3. 옳은 일을 하다가 그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37) 德있는 말을 주고 받는 1인 1조 실습 후 느낌을 발표합니다.

불타의 교화하신 네 가지 섭심(攝心)

1. 보시(布施)니 물질이나 육신이나 정법으로 남을 위하여 힘껏 도와 주는 것이다.

2. 애어(愛語)니 항시 남의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진정으로 아껴 주며 좋은 말과 법된 말을 해주는 것이다.

3. 이행(利行)이니 대중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며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4. 동사(同事)니 그 나라와 그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인연을 가까이 맺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다.

삼세의 삼중 살·도·음계를 진심으로 참회 사면하는 방법

1. 몸으로 남을 해하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미개척지를 개척할 일
2. 말로 남을 해하지 말고 남의 암담한 전로를 열어줄 일
3. 마음으로 남을 해하지 말고 늘 호령하고 기원해서 밝은 광명을 비춰줄 일
4. 물질로 남을 해하지 말고 도움주는 일을 할 일
5. 계문을 몸소 잘 지키고 다른 이도 계문을 믿어서 지키게 하는 일

살펴야 할 세 가지 말

『하루하루를 지낸 후에는 반드시』

1. 내가 빈 말(虛言)을 하였는가, 참 말(眞言)을 하였는가.
2. 남에게 해될 말(害談)을 하였는가, 덕될 말(德談)을 하였는가.
3. 잡될 말(魔說)을 하였는가, 여러 사람에게 모범될 말(法說)을 하였는가를 늘 살펴 볼 지니라.

38) 2인 1조 실습

- ① 어려운 실정을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언어표현을 해봅니다.(암담한 전로를 열어주는 말)
- ② 역할을 바꾸어 해봅니다.
- ③ 참말을 하였는가?
 덕된말을 하였는가
 모범된 말을 하였는가

大山宗法師 法問Ⅱ集

■ 원기 五十二년 연두법문

인화(人和)하는 길

- ① 크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열 벼만 관대히 용서해 주면 열 한 벼째는 잘하리라.
- ② 무엇보다도 먼저 정의(情誼)가 건네야 한다.
- ③ 남의 뜻을 맞추기에 노력하라.
- ④ 몸소 더 배우고 더 실천하라.
- ⑤ 남의 부족을 말하는 것보다 그 장점을 말해 주기에 노력하라.
- ⑥ 선은 상주고 악은 벌주되 벌은 조금 적게 주라.
- ⑦ 항상 남의 인격을 존중하고 주권을 세워주라.
- ⑧ 미움과 사랑에 끌리지 말고 항상 원만하라.

■ 팔정도(八正道)와 삼학(三學)

정 견(正 見) - 사리간에 바르게 아는 공부

정사유(正思惟) - 바른 생각을 하는 공부

慧
정 어(正 語) - 바르게 말을 하는 공부

정 업(正 業) - 바른 일을 하는 공부

부 정 명(正 命) - 천명(天命)을 순수(順受)하여 안분(安分)의 도를 지키는 공부

정 정진(正精進) -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에 간단(間斷)없이 일심(一心)으로 정진하는 공부

定 정념(正念) - 마음 가운데 일호(一毫)의 사심(邪心)없이 일념(一念) 즉 정념(正念)을 갖는 공부

정 정(正 定) - 일심불란(一心不亂)한 일정심(一定心)을 갖는 공부

39) 3인 1조 실습(廳者, 話者, 記錄者)

역할을 바꾸어 가며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청자, 화자, 기록자의 느낌을 발 표해봅니다.

大山宗法師 法問三集

163. 말씀하시기를 『상대방이 도가 아닌 말과 행동으로 상대하여 올 때에는 진리를 역행하는 것이므로 상대하지 말라. 상대하면 결국 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
(54. 8. 9)

176. 말씀하시기를 『충고가 끊어질 때 그의 앞길은 막히는 것이다.. 충고를 받지 않으면 주위에서 일체 충고를 아니하여 주므로 평생을 자기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모르고 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새 사람도 못 되고 퇴보하게 된다. 대종사님께서나 정산종사님께서도 출가한지 몇 년 안된 나에게 「삼학(三學)중 네가 어디에 편중되는 것 같으냐」고 자주 물으셨다. 잘못을 지적받을 때는 섭섭해도 꾹 눌러 참고 남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대인(大人)이다.』
(55. 9)

212. 어떠한 일로 시비를 말하는 제자에게 『큰 일이라도 되도록 작게 만들어 처리하고 또 한두 번의 실수를 가지고 그간 노력하고 공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남이 약해졌을 때에 감싸주고 안아 주어야 한다.』

298. 한 청년이 와서 종법사께 말씀드리는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 취직을 하여야 되겠다는 말을 쓰는지라 들으신 후 말씀하시기를 『생존이라는 말보다 활생(活生)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존이라는 말로 출발하면 개인주의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활생은 활동하여 산다는 것으로 모두를 살리고 산다는 출발이므로 공동주의가 된다. 과거 종교는 기도를 올릴 때 모두 잘되게 하여 주십사 했는데

앞으로는 나와 모두에게 어떻게 유익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62. 12. 26)

309. 말씀하시기를 『대종사님께서는 제자 가운데 질한 일이 있을 때에는 상을 다 주지 않으시고 아껴 두셨다가 잘못이 있을 때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벌을 다 주지 않으시고 잘할 때를 기다려서 용서하여 주시는 쿄도(襟度)가 있으셨다.』

남을 받아들인 만한 도량(64. 5. 1)

40) 언어와 응대로써 감명을 받고 용기를 얻었던 사례를 적어보고 발표합니다.

정산 종사 법문과 일화
한 울안 한 이치에

13. “‘어떻게 누구를 좋게 해줄꼬’ 하는 마음이 심덕이요, 어느 방면이로든지 남을 유익주는 행동이 행덕이요, 남의 앞길을 열어주고 인격을 두둔해 주는 말이 언덕이다.”

34. “법문 듣는데 도가 있으니,

첫째, 마음을 비우고 들으라.

법문을 들을 때 늘 듣는 말을 또 듣게 된다는 관문상이나, 어렵고 고준해서 감히 따를 수 없다는 혼애상을 버리고, 자기의 아는 것에나 세간사에 집착된 마음도 없이 할 것이며, 설법하는 분에 대한 여러 가지 관념을 놓아 버리고 오직 텅 빈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둘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들으라.

부처님의 법은 이론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심심풀이로 믿고 닦는 것도 아니며, 다못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인생의 크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만사에 앞서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셋째, 활용할 대중을 가지고 들으라.

설법의 잘 하고 잘못하는 가늠이나, 법설을 말만 취하여 옮기려는 생각이나, 또는 누가 이 법설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걸려 있지 말고, 진실로 내가 이 법문을 어떻게 활용하여 살려 낼 것인가 하는 대중을 가지고 실지 경계에 다달아서 들었던 법문을 연관시켜 실천하는 것이 들을 때나 활용할 때에 최고 차원의 법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홍서원에 ‘법문이 한이 없으나 맹세코 다 배우리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한 법문은 부처님의 법문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산 법문을 말하는 것이니 공부하는 사람은 천하에 당하는 곳마다 법문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45. 김대심(金大心)이 조실에 와서 뵈오니 정산 종사 물으시었다.

“너의 건강이 요즈음 좀 어떠냐?”

“돌팔이 의사한테 약 먹고 거의 나았습니다.”

이에 꾸짖어 말씀하셨다.

“보통 사람에게라도 그런 말을 써서는 아니 될 터인데 병을 낫게 해 준 은인을 돌팔이라니 그 무슨 말이냐. 앞으로는 그런 말을 쓰지 마라.”

41) 위의 예문을 봉독하신 후 느낌을 나누십시오.

44. 5·16 이후 혁명 정부에서 대학 정비를 위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원광대학도 감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학장을 비롯하여 상당한 수의 교수와 직원들이 전무출신으로서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원들이 감복을 하고 갔다는 것이다. 그 때 정산 종사께서는 병환이 위중하시어 동산선원에 계실 때인데 문병차 온 분들이 대학 사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위안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다.

이를 들으시고는,

“참, 잘했다. 꼭 그래야지.”

하시며 기뻐하셨다.

그런데, 아무리 반가운 일이라고 한두 차례 들으셔야지 위문하러 온 분들이 차례로 일곱 번째인가를 말씀드려도 그 때마다 처음 들으신 듯 반겨하시었다.

이러한 일을 뵈옵고 있던 한 교무가 사뢰었다.

“편찮으신데 똑같은 말씀을 어찌 그렇게 다 듣고 계십니까? 들었다 하시고 그만 들으십시오.”

이에 꾸짖어 말씀하셨다.

“어찌 그다지 속이 없느냐? 그 좋은 이야기라고 힘써 말하는데 내가 들었다고 하면 무슨 기운이 나겠느냐?

이 하나의 일에서도 몸이 괴로우시다는 생각이나 또 앞에 들은 이야기를 거듭 들는다는 흔적이 마음에 조금도 없으시었다.

54. “신사의 일곱 가지 천함이 있으니,

첫째, 남의 것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도모하거나 생색을 내는 것이요,

둘째,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자기가 깨친 것처럼 말하는 것이며,

셋째, 단체의 외교를 할 때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하는 것이요,

넷째, 단체 일을 집행할 때 혼자 다 차지하려는 것이며,

다섯째, 강연할 때 다른 사람의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요,

여섯째, 다른 사람의 물건을 쓰기 좋아하는 것이며,

일곱째,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이다.”

42) 똑 같은 말을 계속 듣는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언어표현을 해봅니다.

大宗經 選外錄

一. 實示威德章

14. 외인 교제에는 특히 겸양하시고 다습게 대하시었으나 외인들은 거개 무섭게 뵈옵고 저 어른이 곧 영웅이 아니시냐고 말하였으며 교도들은 거개 다습게 뵈옵고 자애로운 어머님 같으시다고 말하였다.

15. 말씀은 항상 실생활에 연결되는 실담(實談)을 하셨고 형이상학(形而上學)에 흐르는 고원한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으며, 모든 제자에게 공리 공론을 매양 크게

경계하시었다.

16. 덕화와 위엄이 겸전하시어 멀리서 계시는 곳만 생각하여도 더운 기운이 돌았고, 한때라도 모시고 있으면 그 훈기(薰氣)에 추운 줄을 몰랐으며, 제자나 외인을 막론하고 조그마한 사심이라도 품고는 떨려서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할 천지 정기(正氣)를 가지시었다.

七. 教化機緣章

1. 김대거(金大)는 어려서부터 기개가 호방하고 국량이 광활하여, 일찍이 일생을 천하에 방랑하며 농세(弄世)로써 소일할 뜻이 있었다. 하루는 조모 노덕송옥(盧德頌玉)의 인도로 만덕산에서 대종사를 처음 뵈었다. 대종사 말씀하시었다.『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각기 기국대로 일을 할 세상이다. 뜻 없이 방랑하면 세상에 빚이 되는 것이다. 불보살들은 시방세계를 자기의 일터로 삼고 육도 사생을 자기의 권속으로 삼아서 그들을 제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복락을 삼으시는 것이다. 어찌 넓고 크지 아니하냐. 이것이 곧 세상을 참으로 크게 즐기는 길이 되는 것이다.』 김대거 그 후 얼마 아니하여 출가하였다.

43) 교단에서 인재개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망한 인재라고 생각하시고 적극 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2인 1조 역할실습)

八. 一心積功章

13. 대종사 말씀하시었다.『수양이 깊고 공부가 깊은 사람의 말은 들을 때에는 별스럽지 않은 것 같아도 오래 갈수록 새로우며 실생활하는 데에 부려 쓸 것이 많고 수양이 얕고 공부가 없는 사람의 말은 들을 때 그럴듯하나 오래 가지 못하고 실생활하는 데에 부려 쓸 것이 없는 것이다.』

九. 靈寶道局章

2. 대종사 말씀하시었다.『수도인이 신(身) · 구(口) · 의(意) 삼업만 청정히 하면 그 몸이 곧 아미타불이 좌정하고 계시는 정토 극락이요 제불 제성이 장엄하고 계시는 불국 세계라. 제천 제신이 밤낮 없이 호위하여 줄 것이다.』

十九. 要言法訓章

30. 대종사 말씀하시었다. 『참된 말은 거짓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거짓 된 말은 참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31. 대종사 말씀하시었다. 『은혜를 발견하면 원수도 다시 은인으로 화하고 원 맘을 일어내면 은인도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것이다.』

32. 또 말씀하시었다. 『남의 은혜만 많이 바라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세정 알아 주기가 어렵고, 제 욕망만 채우려는 사람으로서 남에게 혜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35. 대종사 말씀하시었다. 『공부심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보통 하는 말이라도 촉이 달려 나오므로 결과를 나쁘게 맺어서 뒷날의 화를 불러오고, 공부심이 있게 사는 사람은 보통 하는 말이라도 덕이 따라 나오므로 결과를 좋게 맺어서 뒷날의 복을 불러오는 것이다.』

44) 은혜발견 감사표현하고 계시는 사례를 들어 의견을 나누십니다.

좌산종법사 법문

복짓는 말 죄 짓는 말

| | |
|-------------------|-----------------------------|
| 안정을 주는 말 | — 불안을 주는 말 |
| 바른 판단을 주는 말 | — 바른 판단을 흐리는 말 |
| 을바른 말 | — 그른 말 |
| 신, 분, 의, 성을 북돋는 말 | — 불신, 탐욕, 나, 우를 조장하는 말 |
| 공부심을 진작시키는 말 | — 타락을 조장하는 말 |
| 정진심을 장려하는 말 | — 해태심을 조장하는 말 |
| 전진적인 말 | — 퇴영적인 말 |
| 자비로운 말 | — 잔인한 말 |
| 감사심을 북돋는 말 | — 원망심을 부추기는 말 |
| 자립심을 기르는 말 | — 의뢰심을 기르는 말 |
| 충고의 말 | — 비위 맞추는 말 |
| 진실한 말 | — 거짓말 |
| 純直, 正直, 剛直한 말 | — 비단같이 꾸미는 말 한입으로 두말하는 말 |
| 相을 부수는 말 | — 相을 조장하는 말 |
| 선한 말 | — 악한 말 |
| 권선하는 말 | — 劍惡하는 말 |
| 악을 징계하는 말 | — 선을 징계하는 말 |
| 好賢樂善하는 말 | — 賢疾能하는 말 |
| 法다운 말 | — 망령된 말 |
| 大義와 法을 세우는 말 | — 大義와 法을 흐리는 말 |
| 진리에 합당한 말 | — 미신, 사특함에 흐르는 말 |
| 깨우침을 일깨우는 말 | — 더욱 어리석게 하는 말 |
| 희망적인 말 | — 절망적인 말 |
| 살리는 말 | — 죽이는 말 |
| 사기를 진작하는 말 | — 사기를 꺾는 말 |
| 긍지를 살리는 말 | — 긍지를 죽이는 말 |
| 긍정적인 말 | — 부정적인 말 |
|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말 | — 나쁜 분위기를 조장하는 말 |
| 화합시키는 말 | — 이간시키는 말 |
| 즐거움을 주는 말 | — 괴로움을 주는 말 |
| 보람을 주는 말 | — 보람을 뭉개는 말 |
| 거룩함을 북돋는 말 | — 비루함을 북돋는 말 |
| 청청심을 북돋는 말 | — 혼탁한 마음을 북돋는 말 |
| 서원을 북돋는 말 | — 서원을 흐리게 하는 말 |
| 전정을 열어 주는 말 | — 전정을 막는 일 |
| 해탈을 돋는 말 | — 침착을 돋는 말 |
| 佛·法·三寶를 찬탄하는 말 | — 佛·法·三寶를 비방하는 말 |

우리는 지금 「입으로 복을 짓고 있느냐, 죄를 짓고 있느냐」하는 것을 살피고 또 살펴서 한량없는 복문을 열어 갈지언정 당초에 바라지 않았던 죄고를 장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지혜있으면 복 짓기에 바쁘고 어리석으면 죄 짓기에 바쁘다.

종 법 실

- 45) 종법사님 법문을 받들고 복 짓는 말과 죄 짓는 말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봅니다.
- 46)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언어와 응대의 중요성과 느낀바를 발표합니다.